



## 금융위,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

최 원 선임연구원

■ 금융위는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보완하여 개선함.

- 2010년 10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자료에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고 보험료지수<sup>1)</sup>를 통한 보험료 수준 비교 공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투자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변액보험의 경우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개선함.
- 동 개선안은 보험업 감독규정, 협회 상품공시기준 개정, 시스템 정비작업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공시실태의 지속적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 동 개선안에는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 비교가능성 확대, 변액보험 펀드 분류체계 개선, 소비자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상품공시내용 정확성 제고, 공시내용 이용편의성 제고가 포함됨.

- 지금까지 보험료지수를 표준 순보험료<sup>2)</sup> 대비 영업보험료로 산정하여 왔으나 향후 참조 순보험료<sup>3)</sup> 대비 영업보험료로 개정하여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 수준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함.
- 변액보험 펀드가 금융투자상품 펀드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주식투자 비중과 애매한 펀드유형 분류 등으로 공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존재함에 따라 변액보험 펀드 분류체계를 금융투자상품 펀드 분류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선함.

1) 보험회사별 보장성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개념으로 보험료지수가 낮을 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의미함.  
2) 보험회사가 적립할 최소한의 책임준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금감원장이 정하는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를 의미함.  
3)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전체의 경험통계율을 기초로 산출하여 금감원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함.

- 현행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이 실제 보험료 산출 개념이 아닌 자신의 가입조건과 비슷한 유형의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안내하는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 운전자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한 소비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함.
- 공시 관련 보험회사 담당자의 인식 부족, 사전검증체계 미비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류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내·외부 검증절차 신설, 공시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높임.
- 한편, 상품공시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표기하고 보험상품 안내화면과 상품공시실을 링크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하며, 공시화면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함.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금융위, 11/23)